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Suicidal Impulse of Senior Citizen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djustment Resilience

김숙향*, 황경란**

경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Sug-Hyang Kim(kimsughyang@naver.com)*, Kyoung-Ran Hwang((hkran@ggwf.or.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와의 동거유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5세 이상 80세 미만이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학력이 낮아질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혼자된 노인과 자녀와 비 동거 상태인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울기 검정 결과는 사회적 배제가 높은 집단의 적응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자살생각이 자살행위로 이전되기 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보호요인인 적응유연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후속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노인의 사회적 배제 | 자살생각 | 적응유연성 | 조절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at adjustment resil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regarding suicide in senior citizens,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mographic sociological factors that affect suicidal impulse have been shown to be age,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child co-residence. Senior citizens between the ages of 75 and 80 have been shown to have the most suicidal impulses, whereas the tendency to have such suicidal impulses increases as the level of education decreases. Furthermore, those seniors who are unmarried or single due to divorce, death, or separation and those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tended to have stronger, more frequent suicidal impulses. Second, seniors have been shown to suffer stronger suicidal impulse when subjected to more serious social exclusion. Third, it has been verified that adjustment resilience has a strong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regarding the suicidal impulses of senior citizens. Last, the results of the inclination test (Hypothesis Test for Slope of Inclination) have shown that adjustment resilience tends to be lower in the group that is more socially exclud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ocial policy creation in order to prevent suicide by senior citizens and set forth the practical implication regarding adjustment resilience as a protection factor for further studies.

■ keyword : | Social Exclusion of Senior Citizens | Suicidal Impulse | Adjustment Resilience | Moderating Effect |

I. 서론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회원국가에서 10년 넘게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6명으로 OECD국가 평균 보다 2.6배 높은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는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여 개입방안을 시사한다[31]. 통계청(2015) 통계 자료에 의한 노인 자살시도율이 65~69세 14.8%, 70~74세 9.0%, 75~79세 11.0%, 80~84세 11.0%, 85세 이상 7.3%로 보고되어 노인자살 감소를 위한 사회구성원 관심과 국가개입 방안을 시사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 봉착은 노인 자살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 다차원적·거시적 접근을 시사한다. 노인 자살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소외거리의 상실, 외로움, 소외감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 촉발과 함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는 노인의 주요한 문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 및 가정 내의 지위 저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감퇴 및 빈곤화를 양산하여 삶의 만족 상실을 초래 할뿐 아니라 좌절감 동반과 함께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8][9][12-14][18][19][24][30][31]. 노인의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청(2015)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69세 대상자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관련 32.8%, 경제적 어려움 31.6%, 외로움 7.1%, 가족 사망 3.4%, 배우자 및 가족과의 단절 16.2%, 배우자 및 가족의 건강 5.1%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으로써 경제적 배제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사회적 배제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신욱(2006) 또한 소득 부족으로 인한 물질적 빈곤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원과 기회의 박탈을 사회적 배제 의미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빈곤 초래와 자살 생각을 갖게 하는 근거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과 자살 시도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 악화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OECD자살 불명예 1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2015)는 노인 자살 예방 및 해결방안 시범사업으로 노인의 우울감, 자살생각 감소, 친구 수 증가 프로그램시행 후 자살생각 감소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자살예방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여 자살관련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현아(2014)는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성과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노인 자살 예방서비스 실천과정에서 노인자살 예방센터의 기관장, 실무자, 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에서 성과 의미와 고찰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 생명의 끈 부여잡기'라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실무자와 이용자의 만남 등은 '외부의 자원과 지지를 획득'하게 된다고 보고하여 자살 생각을 갖는 이용자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노인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미경·이규미(2010)는 노인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적응유연성(resilience)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김숙향(2013)은 노인의 높은 적응유연성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로 발생하는 우울한 감정, 비관적 감정 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의 교환자원 상실 등은 노인의 경제적 활동과 소비활동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6][15][17][20][23][2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자살 OECD 1위' 불명예를 적극 반영하여 양적 측면에서 노인 자살 연구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배제와 노인 자살생각 간의 보호요인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결론 도출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 가설은 연구모형에 의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살생각

노인 자살 생각은 노년의 삶에 대한 의욕 저하, 즐거움의 상실, 무능력감,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우려하는 마음 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Kim & Lee(2009)는 자살을 행하기 위하여 생각하거나 계획 등의 사고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자살생각으로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Durkheim은 위험과 치욕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살을 광란증 자살, 강박증 자살, 우울증 자살, 충동적자살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환각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하는 광란증 자살(Maniacal suicide), 우울과 슬픔 등의 요인으로 주변 사람들과 건전한 유대관계를 인식하지 못해 삶이 권태롭거나 너무 고통스러워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우울증 자살(Melancholy suicide), 아무런 동기도 없고 명확한 이유를 동반하지 않고 죽음의 관념이 고착 되면서 자살하는 강박증 자살(Obsessive suicide)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눈 깜짝 할 사이에 자살에 저항 할 수 없는 자살행위를 촉발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충동적 자살을 설명 하였다[22].

노인 자살은 노인의 역할 상실과 지위 하락 수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자원 결핍은 가족과의 통합, 심리사회적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관계망의 축소의 귀결과 함께 극단적인 자살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12].

2.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자신을 포기한 자, 장애인, 학대아동, 장애인, 약물 중독자 등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명된다[1]. 이후 사회적 배제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Berghman(1995)도 사회적 배제개념을 빈곤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불평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기회의 박탈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계의 결핍 등에 의한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의 곤란을 야기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관계적, 문화적, 동네, 사회참여, 기본서비스,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는 배제를 사회적 배제로 개념화 하여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3. 적응유연성

인간의 생애주기는 끝없는 역경과 고난의 시련을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생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동력이 필요한데, 스프링보드처럼 떨어지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적응유연성 개념으로 제시하였다[7]. 적응유연성은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서 역경과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한다. Lewis(1983)는 노년기의 부정적인 경험을 성공적으로 적응 하도록 하는 잠재적인 힘을 적응유연성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적응유연성을 노년기에 경험하는 고난, 시련, 역경, 불행 등의 요인에 대하여 탄력·성공적 극복을 원동력으로 하여 스스로 역경을 이겨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연구에 적용한다.

4.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자살생각, 적응유연성 선행연구 고찰

사회구성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의 박탈은 주로 부정적인 경험을 초래하여 다양한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자살,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배제, 자살, 적응유연성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영란(2013)은 '일본의 노인자살 예방적 정책 고찰'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여전히 정신건강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 곤란의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간과를 보고하여 자살관련 경제적 측면 개입을 제시하였다. 이현정(2015)은 '노인 자살위험 집단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 삶을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노인들이 자살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노인의 심리사회적 상실이 자살생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현경·김미선·최승순·최만규(2014)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살 생각 유발변인으로 연령, 우울, 주관적 정신건강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한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심리적 측면의 자살요인 고찰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화(2015)는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연구에서 현재 처한 배우자 사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어려운 상황은 노인 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한삼성·강성욱·유왕근·피영규(2009)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박현정·박종익(2015)의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에서도 자살은 사회 환경이 주요한 기제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로부터 분리, 격리 등의 사회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상황은 자살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의 자살생각 변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 우울, 주관적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미 충족을 자살요인으로 보고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사한다[18].

둘째, 김창진(2007)의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지지, 건강, 경제적 어려움, 우울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강초록·조여태(2012)의 자살생각 연구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Cattell(1998)은 노인자살 위험요인으로 고령, 여성배우자 사별, 독거, 신체적 질환 등으로 보고하였다. 김신열·김순규·서효정(2011)의 우울과 적응유연성의 연구에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심리적 위험 상황요인으로 우울과 적응유연성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여 노인 자살생각 요인의 심리적 위험상황 고려를 시사한다.

셋째, 강철희·송인한·이상철(2009)의 사회적 배제, 경제적 수준, 우울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의 자각은 우울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미경·이규미(2010)도 노년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적응유연성 요인에 의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및 심리적 위험상황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 적응유연성에 대한 중요성 부여로 해석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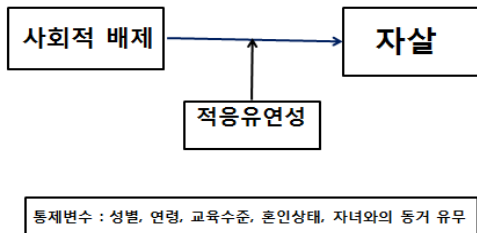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1곳, 경로당 2곳과 서울시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2곳, 경로당 2곳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자는 설문에 앞서 응답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일대일 개별면접 형식으로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시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글자독해의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는 조사자가 설문 문항을 읽어 주면서 자기 기입을 하도록 하였다. 총 400부를 설문 조사하여 이중 불완전응답 10부를 제외한 3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자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검정(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4.1 종속변수 : 자살생각

자살생각 측정도구는 김창진(2007)이 Beck의 자살생

각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13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기존 Beck 척도를 재구성한 척도는 짧은 문장으로 노인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이 용이하기 때문에 김창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창진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890$,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871$ 로 나타났다.

4.2 독립변수 :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김태준(2010)의 척도로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 참여적 배제, 동네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적 배제 요인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관계적 배제 영역은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없음 포함)’ 4로 구성되었으며, 김태준(2010)의 연구에서 관계적 배제 신뢰도 $\alpha=.802$,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757$ 로 나타났다.

문화적 배제는 4문항으로 ‘한 달에 2회 이상’, 1 ‘한 달에 1회 이상’, 2 ‘3개월에 1회 이상’, 3 ‘6개월에 1회 이상’, 4 ‘1년에 1회 이상’, 5 로 측정하였으며 김태준(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732$,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663$ 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적 배제는 4문항으로 ‘예’ 0, ‘아니오’ 1로 측정하였으며 김태준(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701$,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626$ 로 나타났다.

동네 배제는 6문항이며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4로 측정하였으며, 김태준(2010) 연구에서 신뢰도 $\alpha=.903$,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638$ 로 나타났다.

기본서비스 배제는 7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4로 김태준(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alpha=.905$,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857$ 로 나타났다.

경제적 배제는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응답하도록 설계하여 설문조사한 후 7점 척도의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총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300만 원 이상’ 1, ‘25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200만 원 이상 250만원 미만’ 3, ‘15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 5,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6, ‘50만원 미만’ 7로 본 연구의 경제적 배제는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지표로서 노인의 경제적·재정적 상태의 빈곤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이다.

4.3 조절변수 :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노인을 대상으로 고안 된 Wagnild와 Young(1993)의 RS(Resilience Scale) 측정도구를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황영석(2014)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황영석(2014) 연구에서 신뢰도 $\alpha=.927$, 본 연구의 신뢰도 $\alpha=.950$ 으로 나타났다. 척도는 5개 영역의 총 14문항으로 ‘삶의 의미(meaning)’ 3개 문항, ‘평정(equanimity)’ 2개 문항, ‘인내(perserverance)’ 2개 문항, ‘독립적 존재(existential aloneness)’ 2개 문항, ‘자기 신뢰(self-reliance)’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구성 되었다.

4.4 통제변수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와의 동거 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와의 동거 유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45.1%(176명), 여성 54.9%(214명) 결과를 보여주어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70세 미만 23.6%(92명), 70세 이상 75세 미만 26.2%(102명), 75세 이상 80세 미만 28.2%(110명), 80세 이상은 22.1%(86명)로 연령분포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15.4%(60명), 중학교 졸업 12.3%(48명), 고등학교 졸업 41%(160명), 대학교 이상 졸업 31.3%(122명)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이상 졸업이 72.3%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혼인상태는 기혼 57.9%(226명), 미혼·사별·별거 등이 42.1%(164명) 결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동거 유무를 살펴보면, 동거 24.6%(96명), 비 동거 75.4%(294명)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자녀와의 동거보다 자녀와의 비 동거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가족 형태의 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형태 가족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 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단위 : 명, %)

변수	구분	빈도(N)	구성(%)	표준편차(SD)
성별	남성	176	45.1	-
	여성	214	54.9	
연령	65세 이상 70세 미만	92	23.6	-
	70세 이상 75세 미만	102	26.2	
	75세 이상 80세 미만	110	28.2	
	80세 이상	86	22.1	
	합계	390	1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60	15.4	1.01
	중학교 졸업	48	12.3	
	고등학교 졸업	160	41.0	
	대학교 이상 졸업	122	31.3	
혼인상태	기혼	226	57.9	.43
	미혼, 사별, 별거 등	164	42.1	
자녀와의 동거 유무	동거	96	24.6	.43
	비 동거	294	75.4	
합계		390	100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F=4.021, p<.01), 교육수준(F=6.324, p<.001), 혼인상태(F=-3.460 p<.01), 자녀와의 동거 유무(F=-3.014, p<.01)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서 성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에서 75세 이상 80세 미만의 가장 높은 결과와 70세 이상 75세 미만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의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 졸업 대상자의 자살생각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자살생각, 적응유연성 수준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자살생각 및 적응유연성의 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서 관계적 배제의 평균은 1.93(SD=.65), 문화적 배제의 평균 3.39(SD=.94), 사회참여적 배제의 평균 .73(SD=.21), 동네 배제의 평균 2.27(SD=.40), 기본서비스 배제의 평균 2.08(SD=.53), 경제적 배제의 평균 4.57(SD=2.38)의 수준으로 전체 평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 차이분석

(N=390)

변수	구분	자살생각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
성별	남성	2.305	.611	.788	-
	여성	2.254	.647		
연령	65세 이상 70세 미만(a)	2.226	.666	4.021**	c)a)d)b
	70세 이상 75세 미만(b)	2.184	.635		
	75세 이상 80세 미만(c)	2.450	.520		
	80세 이상(d)	2.222	.681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a)	2.503	.758	6.324***	a)b)c)d
	중학교 졸업(b)	2.417	.689		
	고등학교 졸업(c)	2.276	.571		
	대학교 이상 졸업(d)	2.114	.571		
혼인상태	기혼	2.184	.558	-3.460**	-
	미혼, 사별, 별거 등	2.405	.701		
자녀와의 동거 유무	동거	2.111	.576	-3.014**	-
	비 동거	2.332	.639		

*p<.05, **p<.01, ***p<.001

표 3.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자살생각, 적응유연성의 수준

(N=390)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배제	관계적 배제	1.93	.65	1.00	4.00
	문화적 배제	3.39	.94	1.00	5.00
	사회참여적 배제	.73	.21	.25	1.00
	동네 배제	2.27	.40	1.17	3.67
	기본서비스 배제	2.08	.53	1.00	4.00
	경제적 배제	4.57	2.38	1.00	7.00
	평균	2.14	.30	1.38	3.31
자살생각		2.28	.63	1	3.92
적응유연성	삶의 의미	3.43	.92	1.00	5.00
	평정	3.43	1.01	1.00	5.00
	인내	3.27	1.04	1.00	5.00
	독립적 존재	3.38	1.00	1.00	5.00
	자기 신뢰	3.28	.87	1.00	5.00
	평균	3.35	.87	1.00	5.00

*p<.05, **p<.01, ***p<.001

표 4.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N=390)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SE)	β	B(SE)	β	B(SE)	β
통제변수	성별	-.206	-.163**	-.198	-.157**	-.168	-.133
	연령	-.028	-.047	-.024	-.041	-.010	-.017
	교육수준	-.142	-.228***	-.125	-.202***	-.118	-.190***
	혼인상태	.170	.133*	.142	.111*	.137	.108*
	자녀와의 동거 유무	.122	.084	.142	.098	.124	.085
독립변수	사회적 배제	.183	.087**	.220	.105*	1.057	.505**
조절변수	적응유연성			-.011	-.193***	-.012	-.214***
상호작용항	사회적 배제 *적응유연성					-.020	-.420**
상수		2.313***		2.636***		.842	
R ²		.102		.138		.156	
F(sig.)		7.263***		8.748***		8.803***	

*p<.05, **p<.01, ***p<.001

군 2.14(SD=.63)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사회적 배제의 요인에서 경제적 배제 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사회 참여적 배제 요인은 가장 낮은 평균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살생각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2.28(SD=.63)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적응유연성의 수준은 삶의 의미 평균 3.43(SD=.92), 평정 평균 3.43(SD=1.01), 인내 평균 3.27(SD=1.04), 독립적 존재 평균 3.38(SD=1.00), 자기 신뢰 평균은 3.28(SD=.87)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적응유연성의 전체 평균은 3.35(SD=.87)로 나타났다.

4. 가설 검증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유연성 조절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 1은 통제변수와 사회적 배제를 투입 하여 분석한 모형으로 설명력 R² 값이 10.2%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성별(β =-.163, p<.01), 교육수준(β =-.228, p<.001), 혼인상태(β =.133, p<.05)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연령과 자녀와의 동거유무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델 2는 적응유연성 조절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며 설명력 R² 값이 13.8%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β =-.157, p<.01), 교육수준(β =-.202, p<.001), 혼인상태(β =.111, p<.05)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연령, 자녀와의 동거 유무는 유의하

지 않았다.

모델 3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력 R² 값이 15.6% 상호작용 항인 사회적 배제*적응유연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모형적합도인 F값이 8.80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증가되며, 적응유연성의 조절변수 투입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울기 검정 결과 [그림 2]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높은 집단의 적응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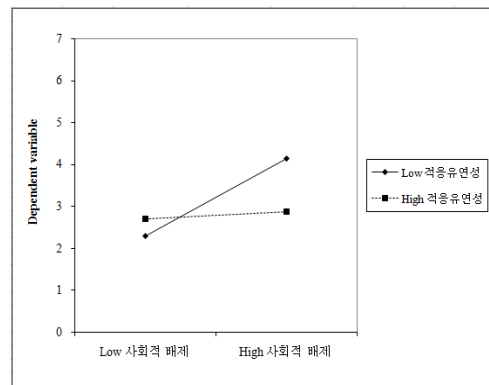


그림 2. 기울기 검정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F=4.021$, $p<.01$), 교육수준($F=6.324$, $p<.001$), 혼인상태($t=-3.460$, $p<.01$), 자녀와의 동거 유무($t=-3.014$, $p<.01$)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 수준이 75세 이상 80세 미만 대상자가 가장 높으며 70세 이상 75세 미만 대상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에 따라 사별, 이혼, 별거 등 배우자가 없는 상황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삼성·강성옥·유왕근·피영규(2009)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이정화(2015)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연구보고에 의한 배우자의 사별과 경제적 상황은 노인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박현정·박종익(2015)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연령, 우울, 주관적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및 충족은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향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인의 경제적 배제는 노인 빈곤을 초래하여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서인균·고민석(2011)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강초록·조여태(2012)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고령자 차별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경감을 위한 노인복지실천 현장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증가되며, 적응유연성의 조절변수 투입은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어,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정미경·이규미(2010)의 연구에서도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적응유연성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본 연구의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적응유연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실천기관에서는 예방중심의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가족구성변화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적응유연성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응유연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현장에서의 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여 연구에 적용한 연구결과는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한 확률 표집과 연구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일반화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 및 자살생각과 적응유연성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유사변인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에 노인의 사회적 배제 및 자살생각과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는 노인 대상의 사회적 배제 및 자살생각과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신욱,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2] 강철희, 송인한, 이상철, “사회복지기관 이용자의 사회에 대한 냉소주의에 대한 탐색 : 사회적 배제, 경제적 수준, 우울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제11권, 제3호, pp.161-188, 2009.
- [3] 강초록, 조여태, “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성·연령·경제상황에 따른 차별인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5권, pp.1-27, 2012.
- [4] 김기원, 김한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한국인구학회, 제34권, 제3호, pp.31-54, 2011.
- [5] 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pp.165-196, 2011.
- [6] 김숙향,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13.
- [7] 김주환, *회복탄력성 : 시련을 행복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2012.
- [8]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9] 김창진, *노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0] 김형태, “학교환경인식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빈곤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 pp.269-291, 2015.
- [11] 김기원, 김한곤, “노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한국인구학회, 제34권, 제3호, pp.31-54, 2011.
- [12] 김형수,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2권, 제1호, pp.159-172, 2002.
- [13] 서인균, 고민석,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 연구, 제31권, 제1호, pp.127-157, 2011.
- [14] 안지혜, 이자연, 장보형, 한창수, *사망원인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노인 자살자의 특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
- [15] 이민숙,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제3권, 제3호, pp.191-208, 2005.
- [16] 이현아, *노인 자살 예방서비스 성과에 관한 사례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7] 이현정, “노인 자살위험 집단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67권, pp.249-276, 2015.
- [18] 이현경, 김미선, 최승순, 최만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 생각 유발변인,” 보건사회연구, 제34호, 제3권, pp.430-451, 2014.
- [19] 이호선, *노인상담*, 학지사, 2006.
- [20] 이정화,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 우울과 자살 생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자료집, pp.7-37, 2015.
- [21] 오영란,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계,” 한국사회정책, 제20권, pp.9-47, 2013.
- [22] 김충선 옮김, *에밀뒤르켐 자살론*, 청아출판사, 1897.
- [23] 정미경, *노년기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 상실경험과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아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4] 한삼성, 강성욱, 유왕근, 피영규, “노인의 자살생각 결정요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1호, pp.192-212, 2009.
- [25] 박현정, 박종익,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7권, 2002.

pp.85-118, 2012.

[26] <http://kosis.kr/>

[27]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1차년도 시범사업 보고서*, 2015.

[28] 遠藤由美, “자존감이 사회적 배제·거부의 반응에 미치는 효과,” *사회학부개요*, 제37권, 제2호, pp.29-4, 2006.

[29] 阿部彩, “일본에 있어서 사회적배제의 실태와 그 원인,” *계간·사회보장연구*, 제43권, 제1호, pp.27-40, 2007.

[30] 橋本 英樹, *사회격차와 건강: 고립사와 사회적 배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민공개 심포지움 @동경대학, 2013.

[3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181631>.

[32] H. Cattell, “The healthier nation and elderly suicide rates some predictive factors,” *Aging and Mental, Health*, Vol.3, No.2, 1998.

[33] Jos Berghman, *Social Exclusion in Europe :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Rramework*, in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Bristol: Policy Press., 1995,

[34] B. Y. Kim and J. S. Lee,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9, pp.651-661, 2009.

[35] K. Lewis, “Grief in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49, No.3, pp.8-11, 1983.

저 자 소 개

김 숙 향(Sug-Hyang Kim)

정회원



- 2014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5년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0월 26일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조

례 위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황 경 란(Kyoung-Ran Hwang)

정회원



- 2002년 : 일본동북대학교 경제학연구과(석사)
- 2005년 : 일본동북대학교 경제학연구과(박사)
- 2005년 3월 ~ 2009년 2월 :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조

빙교수

• 2009년 8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노인)